



환경보전의 중요성

이 미 희

(조치원여자고등학교)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자연이요 우리는 이 자연을 아끼고 보살피며…….” 소홀히 들을 수만 없었던 TV 광고내용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태어나 자라던 그 자연의 땅인 것이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가리켜 ‘금수강산’이라 일컬어 왔다. 또한 우리 민족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보존하였고 그 속에서 심성을 가다듬고 또 그대로인 자연의 맑고 싱그러움 때문인지 비교적 우리 민족은 선하게 살아왔다.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옥같은 물을 두 손으로 마실 수 있던 곳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세월은 흐른다. 계곡에서 흐르는 물처럼……. 그런데 어떠한가? 날이 갈수록 짙어가고 있는 산등성이와 벌거숭이가 되어버려 흉다고 울어대는 나무들과 먹지 못할 먹이를 준 인간들을 원망하며 죽어간 고기들…….

발전하고 있는 나라는 바람직하고 또한 우리의 이상이며 자신이며 희망이다. 하지만 공업발달로 인한 각종 폐수와 늘 푸르던 우리 나라의 하늘을 검고 찌뿌리게 만드는 매연, 배기가스……. 때문에 깨끗한 자연은 물론 우리 인간의 폐와 간장도 자꾸 시퍼렇게 멍이 들어만 간다.

공업이 발달하면 꼭 자연도 더러워져야만 한다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것도 아니건만 높고 푸르던 하늘을 떠받치고 싶었던 어린 나무를 베어내고 자꾸만 좁혀져 가고 있는 삶의 보금자리를 걱정하고 있던 많은 고기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고약한 폐수 때문에 고기들은 원망의 눈을 감아야 했다. 날로 썩어가고 있는 강물과 부주의로 인한 큰 산불로 인해 자연은, 알게 모르게 차갑게 굳어가고만 있는 것이다. 몇년 전만 해도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물을 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보면서 두 손으로 떠먹을 수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따라서 날로 더럽혀져 가고 있는 자연을 되살리자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 등 이러한 구호를 내세우고 깨끗한 자연을 만들고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썩어가고 있던 한강물을 비롯하여 많은 하천, 계곡들이 옛 상태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 인간들의 노력에 아마 자연도 감명에 젖어 있나 보다. 옛처럼 높고 푸른 하늘을 떠받치고 있게 되고 먹이걱정 보금자리 걱정 안 해도 되는 맑은 물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소위 ‘인생을 즐겁게’ 물고기도 노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물지각한 사람들의 노래소리, 요란한 음악소리 대신에

‘주경야독’하는 사람의 호젓함을 달래 줄 이름모를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매일 매일 멍이 들어가던 우리의 폐와 호흡기와 간장도 ‘이제는 살았구나’ 싶어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여 마시는 것이다. 그렇다! 더 이상 우리의 폐와 호흡기를 멍들게 하지 말자! 푸른 하늘을 향해 마음껏 가지를 뻗치게 나무들을 보살피자! 큰 산불 때문에 채 세상을 보기도 전에 이미 저 세상으로 가버린 불쌍한 새끼들을 못내 그리워하며 서글피 울어대는 어미새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자! 결코, 발전하는 한국은 또한 결코 자연과 환경이 더러워지라는 법칙은 있을 수 없다. 또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앞으로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이것은 우리의 포부이며, 자신이며,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자랑 많은 대한민국! 자부심을 갖고 근면한 한국인! 하나의 화폭에 담은 듯한 금수의 경치를 오래도록 외국인의 머릿속에 남게 하자! 어디를 가던지 물밀의 피라미드의 헤엄치는 것을 볼수 있는 맑은물이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게 하자! 버스를 타던, 기차를 타고 여행하면 차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뿌연 먼지와 고약한 악취가 나는 하수구, 제멋대로 쓰레기를 버려서 파리, 모기가 득실득실한 그러한 부끄러운 광경을 이제는 이제는…… .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준 이 강산을 지키고 발전해 나가야 하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강토 강산을 물려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조상이 되도록 하자.

사람과 자연이 함께 번영하며 함께 숨쉬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자연의 푸르름을 인간의 폐와 호흡기에도 느끼게 하자. 우리는 우리는…… . 생동감이 넘치는 자연의 소리를 귀기울여 들어보자. 따라서 약동하는 한국의 고동소리도 들어보자. 한국은 자꾸자꾸 발전해 간다. 자연도 자꾸자꾸 푸르러 간다. 우리 또한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위에 열거한 것들은 결코 헛된 꿈에 젖어있는 것들이 아니다. 썩어가던 한강물에 우리의 노력의 손길이 닿게 하자 고기들은 옛 고향을 찾아 돌아온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농약통을 흐르는 물에 그냥 씻어서 그 농약물을 먹은 고기가 모두 죽었다는 가슴아픈 방송이 매스컴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겠다.

영원히 아름다운 조국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며 후손들에게 땀땀한 조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비록 한 줌의 흙이 되더라도 땀땀한 이름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아직 곱기만 한 우리의 두 손을 모아 한줌의 흙, 한포기 풀을 정성껏 다듬어 보자.

우리는 자연의 생명력 넘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또 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을 미워하며, 원망하며 죽어간 모든 자연의 생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공업 발전을 일궈낸 ‘한강변의 기적’ 이라 많은 외국인들이 칭하듯듯이 이제는 깨끗한 환경을 이룩하는 데의 ‘제 2의 한강변의 기적’을 일으켜 보자.

아!

이제는 맘 놓고 살겠다는 자연의 소리가 막 들리는 듯하다. 우리 모두 귀기울여 창문 너머 들리는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자.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의 소리를…… .

*